

조선시대 생원시 응시자들의 과목 선택과 등제 양상*

윤 선 영**

1. 들어가며
2. 생원시의 비편 제도와 오경의의 위상 격하
 - 1) 생원시 시권의 원편과 비편
 - 2) 오경의의 비편화
3. 시권을 통해 살펴 본 생원시 응시자들의 과목 선택 양상
 - 1) 비편 제도 폐지 이전
 - 2) 비편 제도 폐지 이후
4. 생원시 합격자들의 과목별 등제 양상 - 사마방목을 중심으로
5. 나가며

1. 들어가며

조선시대의 생원시는 경학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했던 시험으로, 진사시와 함께 소과(小科)로 구분되는 기초 단계의 시험이었다. 경학이 중시되었던 조선 초기를 제외하고는, 생원시는 중기 이후부터 줄곧 진사시에 비해 지위가 격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4년 과거 시험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직전까지 부침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854).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없이 실시되었던 중요한 시험이었다.

생원시는 사서(四書)에 관한 의문점을 논리적으로 물은 사서의(四書疑)와, 오경(五經) 가운데 한 구절의 대지(大旨)를 서술하는 오경의(五經義) 두 과목을 시험 보았다. 오경의는 해당 경서에 따라 예의(禮義) · 역의(易義) · 서의(書義) · 시의(詩義) · 춘추의(春秋義)로 다시 분류되는데, 춘추의는 정조대 이후에 폐지되어 사실상 사경의(四經義)로 고시되었다.

처음에는 사서의와 오경의를 모두 시험 보았으며, 응시자가 자신 있는 과목은 시권의 원편(原篇)에 정서로 답안을 작성하고, 나머지 과목은 비편(備篇)에 초서로 작성하여 경중에 차이를 두었다. 이후 1714년(숙종 40) 비편 제도가 폐지되면서 응시자들은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서의와 오경의, 두 과목 중 실제로 생원시 응시자들이 선호했던 과목은 무엇일까? 기왕의 연구에서 살펴본 자료들에는 응시자들이 주로 사서의를 원편에, 오경의를 비편에 작성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¹⁾ 그렇게 된 과정 및 까닭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선시대 주자학에 경도된 학풍과 과장의 기조로 인하여 사서가 중시된 점, 오경이 사서보다 학습의 범위가 넓고 경문의 뜻이 난해한 경우가 많아 시험 대비에 어려웠던 점 등²⁾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경학 시험의 제술 및 강경에서 사서보다 오경의 성적이 나은 자에게 일정 부분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³⁾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감지된다. 더불어 조선 후기 영조대 전후로 문과 초시 초장의 고시 과목으로써 오경의가 폐지된 점⁴⁾ 등, 응시자들이 오경보다는 사서 시험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1) 이래중, 2013 『疑義의 形式과 그 特性』 『대동한문학』 39, 134-135면; 윤선영, 2019 『조선시대 과시의 사서의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9-10면 등.

2) 『승정원일기』 영조 17년(1741년) 5월 1일 기사. “第念五經, 卷秩浩多, 文臣輩有難兼治而盡講.”

3) 강경에서 동점이 나왔을 경우 주역·서전·시전·맹자를 다시 한 번 강하여 그 성적순으로 등위를 다시 매긴 사실[『승정원일기』 정조 1년 9월 21일 기사(박현순, 2022 『조선시대 식년문과의 성격 변화』 『민족문화연구』 97, 179면에서 재인용)], 문과 초시에서 치러진 칠서강 가운데 주역에 배회한 점, 성균관 도기시에서 주역에 응시한 자들에게 가산점을 준 사실 등의 제도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만들어진 상황은 상기해야 할 주요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여러 시사점에 착안하여, 실제 조선시대 생원시의 응시자들이 사서의와 오경의 두 과목 중 어떠한 과목을 주로 선택하였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당대 과장에서 제출된 사서의 및 오경의 시권, 응시자들의 개인 문집, 방목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과연 특정 과목의 선호 양상이 뚜렷했는지, 어떠한 과목의 응시자들이 추후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등제하였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생원시의 실제적 진실에 더욱 근접해 보고자 한다.

2. 생원시의 비편 제도와 오경의의 위상 격하

1) 생원시 시권의 원편과 비편

과거 시험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서는 한 장(場)의 시험 과목으로 두 과목이 고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두 과목 가운데 응시자가 자신이 있는 과목은 원편에 정서로 쓰고, 나머지 과목을 뒤편에 초서로 썼는데, 이때 뒤편의 답안을 비편(備篇, 裨篇)이라고 부른다. 비편 제도는 말 그대로 답안의 구색만 맞추어 간략하게 적었기 때문에 시관들은 원편에 쓴 답안을 가지고 채점을 하고 순위를 매겼다.

조선 후기 과거 시험의 응시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시관이 채점해야 하는 시권의 수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자연스레 응시자가 자신 있어 하는 과목 위주로 채점을 하게 되는 시험의 효율성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비편의 유명무실화는 한 과목에 주력하여 공부 시간을 아끼려는 응시자와, 수많은 시권의 채점 시간을 줄여보려는 주최측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4) 『續大典』『禮典』〈諸科〉“初場五經義, 中場頌·銘·箴·記, 今廢.”

대소과(大小科) 시권의 비편은 본디 양편을 해서로 갖추어 인재를 선발하는 도(道)로 삼았던 것인데, 비편을 갖추는 규식이 폐지된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간혹 있으나 표(表)가 있다 하여 취하지 않으며, 다만 옛 체제를 남겨두는 뜻[存羊之義]으로 초서로 비편을 쓰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어버렸으니 심히 문란하고 실로 의의가 없습니다. 일등(一等)으로 입격한 시권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상태로 임금께 아람에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전혀 없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시지(試紙)를 변통한 이후로 시지의 품질이 매우 조악해져서 내외로 글씨를 갖추는 것이 형세상 어렵습니다.⁵⁾

위는 시권의 비편 제도에 관한 당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인용문이다. 본래는 두 과목에 대한 답안을 모두 정서로 잘 갖추어 써야 하지만, 한 과목은 뒤편에 초서로 간략히 써서 제출하는 것이 이미 관례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험이 끝난 뒤 우수한 성적을 받아 임금에게 보고될 때도 한쪽 면이 초서로 흘려써진 답안은 공경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비편의 폐지에 시지(試紙)라는 또 다른 사정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소과 및 대과 식년시 등 정기 시험의 경우 응시자들이 시험 답안지로 쓸 종이를 각자 마련해 와야 했다. 이 가운데 소과의 경우 역서(易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 가문의 자제들 사이에서 서로 좋은 품질의 시지를 준비해 오던 관습이 생기게 되었다.⁶⁾ 이로 인해 조선 후기에는 시지의 품질을 하하품도련지(下下品擣鍊紙)⁷⁾로 규정하게 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지의 품질을 제한한 것이나, 낮은 품질의 종이에는 양면에 모두 글씨를 쓰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시권의 비편제도는 유명무실한 일의 비유로 표현될 정도⁸⁾로 범문만

5) 『甲峰遺稿』 「金忠靖公甲峯遺稿智編」 〈疏筭〉 “伏以大小科試卷備篇, 本爲具篇楷書, 以爲掄才之道, 而具篇之規廢已久矣. 間或有之, 而以有表不取, 只以存羊之義, 草書備篇, 已成規例, 胡亂甚矣, 實無意義. 至於一等入格之卷, 以此奏御, 殊欠敬謹, 已極未安. 況今試紙變通之後, 紙品甚薄, 內外具書, 其勢不便.”

6) 『科擧事目』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만송궁325), 84면. “監試段, 易書不冬乙仍于, 儒生等名紙乙, 競尙侈美. 至用咨文表紙, 以致紙價翔貴, 爲弊不貲爲白昆.”

7) 『典錄通考』 「禮典(上)」 〈諸科〉 “凡試卷, 用下下品擣鍊紙, 長短體制, 宜一樣裁造”

8) 『疎齋集』 권9, 「議」 〈試卷備篇存罷議〉 “凡事之冒其名而無其實者, 必其弊不但文具而已, 如試卷備篇之類是也.”

있는 채 실제 시권상에서 점차 사라져갔으며, 결국 1714년(숙종 40)에 폐지되기에 이른다.⁹⁾ 그렇다면 비편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응시자들은 어떠한 과목을 주로 원편에 적어냈을까? 우선 아래의 인용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삼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상고하건대, ‘생원시는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疑) 두 편으로 시험하며, 진사시는 부(賦) 1편과 시(詩)·잠(箴)·명(銘) 중 1편으로 시험하여 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경의는 근래에 고관(考官)이 된 자가 수에 맞춰 출제하기는 하나 다시 이로써 관리를 선발하지 않으니, 선비들도 다시 오경을 학습하는 자가 없습니다.¹⁰⁾

다만 그 가운데 시관이 경서를 익힘을 게을리하고 국가의 시험을 소홀히 하여, 으레 지난 시험장에서 이미 시험한 대구(對句)의 문제를 중복해서 출제하여 그 수만 채우려고 할 뿐, 그 작품으로는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응시자들도 오로지 사서의(四書疑) 시험에만 정신을 쏟고 오경의(五經義) 같은 것은 그저 비편에 갇출 뿐이니 심히 구차하고도 또한 근거할 바가 없습니다.¹¹⁾

위의 사료를 통해 생원시에서 제출된 대부분의 답안에서 원편에는 사서의를, 비편에는 오경의를 주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이 생원시 비편의 실체를 지적한 글로, 오경의가 비편화된 데에 있어 경업(經業)을 소홀히 하는 시관들의 나태함도 일종의 요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두 인용문은 모두 본격적으로 비편의 폐지를 명했던 시기보다 한참 전에 기록된 것으로, 이미 오경의 과목은 17세기 중반 무렵부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新補受教輯錄』 「禮典」 〈諸科〉 “大·小科試卷, 備篇勿書, 康熙甲午承傳.”

10) 『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1632) 5월 19일 기사. “竊考大典, 生員試, 五經義·四書疑二篇: 進士試, 賦一篇, 詩·箴·銘中一篇試取云, 而五經義, 則近來爲考官者, 備數出題而已, 不復以此取人, 故士子亦無復學習者.”

11) 『澤堂集』 권3, 「疏」 “只緣中間試官, 怠棄經業, 慢忽國試, 例以前場已試對句之題, 疊出充數, 而不取其作, 故學子, 亦專趨書疑, 而經義則但備裨篇, 其苟且無據甚矣.”

2) 오경의의 비판화

그렇다면, 두 과목 가운데 오경의가 응시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오경의 과목이 시행되었던 초기에 문제 출제 방식에 있어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고려 때의 유제(遺制)로 육경의(六經義)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조선에서 오경의(五經義)가 제술시험으로 정착되며 응시자들은 각 경서에서 나온 다섯 문제 가운데 한 문제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 이렇다 보니, 응시자들은 오경을 통틀어 공부하기 보다는 하나의 경서만을 택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사실상 운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고 여겼다.

조선 중기의 학자 취사(炊沙) 이여빈(李汝濱, 1556-1631) 또한 이에 대해 “평소에 미리 시험에 나올만한 문제를 연습하여 운이 좋게 시험에 출제되거나, 문장에 능한 부형(父兄)들이 자제들을 위해 미리 시험장에서 쓸 답안을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다.”¹²⁾고 하며 오경에서 각기 한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의 방식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경의는 사실상 폐하고 쓰지 않으며 오로지 사서의 과목으로 선비들을 뽑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초기 이후 경서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 응시자가 고르는 방식에 대해 조정에서 여러 논의¹³⁾가 있었다. 이를 반대하는 여론은 대체로 오경 가운데 문의가 비교적 쉽게 여겨지는 경서들로 응시자들이 몰리고 다른 경서는 학습하지 않게 될 것¹⁴⁾임을 주장하였다. 응시자들간 각 경서당 학습량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우려한 것이다.

12) 『炊沙集』 권5, 「雜著」〈時事雜錄下〉“國家自祖宗朝以詩賦疑義, 分二場取生進試, 而義題則并出六經義, 令舉子自擇製之, 故爲士子者, 或預於平日盡製六經義, 遇於試圍以中者有之, 或有能文父兄爲子弟預構以爲試圍用者, 故舉子多遇宿構而得, 或蒙然不分亥豕, 物論頗騰, 遂廢義不用, 而但以祖宗舊制不敢頓革, 猶出經義於試圍, 以寓存羊之意, 取士則專用疑, 其題以四書中聖賢言語異同, 對舉發問.”

13)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1429) 6월 9일 기사. “向者提學尹淮謂予曰, ‘竝出五經義題, 使各述所長, 而取之可也.’ 判府事卞季良曰, ‘若出一經義, 則須盡誦五經者, 乃可作之.’ 禮曹判書申商曰, ‘若能述一經義, 則他經可類推而述也.’ 右議政孟思誠之言亦然.”

14) 『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1533) 6월 17일 기사. “三公議曰, ‘專經事若舉行, 則儒生皆當就易讀之經而不習他經, 不可施行.’”

그 후 인조대에 이르러 대제학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은 “오경의에서 각 기 다섯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유생들이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하므로 점수를 매길 때 우열을 정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추후 중복 출제의 폐단이 생기게 된다.”고 하며 “『경국대전』의 본의를 상실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한 문제만 출제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취지의 차자¹⁵⁾를 올렸다. 결국 1651년 (효종 2)에 “감시의 종장(終場)에서 오경의(五經義)를 모두 출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오경 중에서 한 가지만 출제한다.”는 수교를 내리게 되면서,¹⁶⁾ 폐지 시까지 줄곧 오경 가운데 한 문제만 출제하는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제 방식은 오경의가 응시자들에게 더욱 급속도로 외면받는 데에 이르게 하였으니,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와 연관되는 것이다. 오경의 범위가 넓어서 대문과 주요 주석을 모두 학습해야 하는 응시자에게도, 경의(經義)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한 기준으로 채점을 해야 하는 시관에게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택당은 위의 글에서 “오경의 뜻을 관통하여 훤히 아는 것은 곧 대유(大儒)가 종신토록 공부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며, 불과 감시에 응시한 유학들에게 오경에 통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더불어 문과의 복시 초장에서 치렀던 강경에서조차 오경이 아닌 삼경(三經)을 강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¹⁷⁾

이 밖에도 비근한 예로 조선의 과거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과거제에서는 경의를 시험하며 사서는 통틀어 한 문제를 출제하였지만, 오경은 처음부터 일경(一經)만을 부과한 사실¹⁸⁾이 있다. 이는 이제

15)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1633) 7월 13일 기사. “自監試義題, 改作單題之後, 儒生輩甚以爲便. 今春增廣, 以義入格者甚多, 可謂一變弊習矣. 但於其間, 猶有未革謬規者焉. 竊考『大典』科舉條, 生員試以四書疑·五經義二篇, 爲言者, 蓋指四書五經中, 各出一題, 而試取者也. 近例, 四書則一場只一題, 五經則一場各出五題, 此殊失『大典』本意, 而出題既多, 則儒生輩, 各自取舍, 考試之際, 優劣難定, 且不無他日疊出之弊. 臣意一依『大典』本文爲便. 上從之.”

16) 『典錄通考』『禮典(上)』〈諸科〉“監試終場, 竝出五經義, 此甚不當, 五經中, 只出一題, 順治辛卯承傳.”

17) 『澤堂集』권3, 『疏(下)』“五經淹貫, 乃大儒終身之學也. 國試及第講經, 是秀士大比, 而所試不過三經而已. 今以盡通五經, 責之於監試幼學之類, 決無是理.”

막 공부를 배우기 시작한 자들에게 오경의 전 범위를 익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피력하기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한 경전만이라도 통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섯 경전을 모두 두루뭉술하게 아는 것보다 오히려 효용이 크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오경을 모두 익혀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유학들은 초집 등을 구해 주요 구절만을 익히는 관행에 젖어들었고, 이는 결국 오경에 모두 해박한 유생을 선발하고자 한 애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경의 시제의 출제가 까다롭고 답안의 형식이 제약적이어서 응시자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오경의 시제는 오경의 대문 가운데 일정 구를 문제로 내면 해당 구절의 대지(大旨)를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답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문제는 두 구절로 대구를 이루어 출제하였으며, 간혹 서로 다른 경문이 하나의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출제 경향은 후기로 가면서 단구(單句)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변화하며 단순해지는 듯 보이지만, 경문의 의미를 무시한 채로 구절을 자르거나 축약하는 등 다소 난잡한 방향으로 흘러간다.¹⁹⁾ 『승정원일기』의 사료를 보면, “본조 오경의의 문제는 반드시 두 구절로 대구를 이루니 기교가 지나쳐 출제할 때 이미 어렵다고 느끼는데 한 편의 답안 내에서도 일정한 규칙을 두어 구속이 너무 지나칩니다. 비록 문장에 능한 선비가 있더라도 진실로 재주를 발휘할 곳이 없으니, 이것이 더욱 쉽게 뇌동하고 중도에 폐함을 면치 못하는 까닭입니다.”²⁰⁾라고 하며 당대 응시자들이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오경의 과목의 준비를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생원시의 두 과목 가운데 오경의가 주로 비판에 쓰이며 점차 유명 무실화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경의는 각 경서마다 한 문제씩 5문제가 출

18) 김경식, 2006 『중국교육전개사』, 문음사, 549면.

19) 윤선영, 2020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오경의 시제 소고』 『남명학연구』 67, 19-20면.

20) 『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1632) 5월 19일 기사, “本朝義題, 則必以兩句相對, 過於奇巧, 命題之際, 已覺其難, 而一篇之內, 上下文字, 自有定式, 拘束太過, 雖有能文之士, 固無逞才之地, 此所以尤易雷同, 而不免中廢者也.”

제되다가, 이후 오경을 통틀어 한 문제만 출제되었는데 출제 방식의 변화 여부를 막론하고 조선 초기부터 계속해서 사서의 과목에 주도권을 내어준 것으로 보인다.

오경의가 비편으로 그 위상이 격하한 후 이를 안타까워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한 의론 또한 있었다. 이여빈은 위의 글에서 사실상 오경의를 비편에 쓰는 대신 사서의 과목의 문제를 오경의처럼 출제하는 방식을 고안하기도 하였다. 사서의는 두 문장 이상을 예로 들어 문장 간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오경의처럼 한 두 구의 경문을 보여주고 경문의 대지를 밝히는 식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맹자에서 말하기를 ‘도는 큰 길과 같다.’고 하였는데 도가 큰 길과 같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孟子曰道若大路, 道之所以若大路者何歟云云]”와 같은 식의 문제를 사서의에서 출제한 것과 같다. 사서의 과목 대비용 수험서에 나오는 예상 문제만을 달달 외워 온 응시자들에게, 위와 같이 오경의 출제 방식을 차용한 범범한 질문은 오히려 그들의 허를 찌르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한다. 실제 사서의 과목에서 위치럼 경의(經義)를 물은 시제들은 대략 14% 정도로, 적지 않은 출제 비율을 보인다.²¹⁾

다만 이 같은 시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경의 과목의 비편화는 막을 수 없는 수순이었다. 이는 경학 학습에 있어 사서가 오경보다 더 중요한 텍스트라고 여겨졌다고 보다는, 시험 준비와 채점의 효율이라는 시관과 응시자 양자 간의 암묵적 동의가 만들어낸 현상에 더욱 가깝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자료상의 내용이 아닌 실제 시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을까? 생원시 응시자들의 시권에서는 위의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시권을 통해 살펴 본 생원시 응시자들의 과목 선택 양상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생원시의 응시자들은 모두가 사서의를 원편에 작성

21) 윤선영, 2019 앞의 논문, 102-10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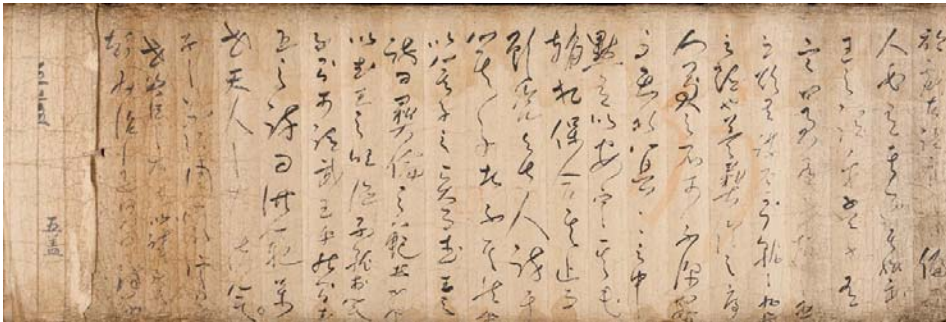
하였을까? 오경의를 원편에 작성한 응시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본 단락에서는 실제 시권상에 나타나는 사실들을 규명하기 위해, 사서의 및 오경의 시권 약 300여 편과 과문집 및 개인문집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답안 등 총 800여 편을 대상으로 하여 생원시 응시자들의 과목 선호도를 구현해 보고자 한다. 이를 비편 제도가 폐지(1714년)되기 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양상에 변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비편 제도 폐지 이전

상술하였듯이, 시권의 비편 제도는 1714년(숙종 40)에 폐지를 명하였다. 실제 생원시 시권상에서 비편이 보이는 마지막 시권은 1711년 식년감시복시에서 작성된 유학 유원현(柳元鉉) 시권으로, 폐지를 명하기 직전까지도 비편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는 오경의에서 춘추의(春秋義)의 폐지를 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춘추의 시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사실²²⁾과는 비교가 되는 것으로, 함부로 선대의 제도를 폐하지 못하는 존양지의(存羊之義)의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22) 춘추의는 『대전통편』에서 “四經義一篇, 四書疑一篇. 春秋義, 今廢.”라 하여 폐지를 명하였는데, 실제 춘추의가 보이는 마지막 시권은 1660년(현종 1) 신한로 시권(申漢老 試券)에 비편으로 작성된 답안이 확인된다. 법령으로 폐지를 명하기 약 100여년 전에 이미 춘추의는 사실상 없어진 과목이나 다름없었다. 윤선영, 2022 『조선시대 과거 오경의 과목의 답안 구성과 특징』 『고전과 해석』 38, 292면.



〈그림 1〉 해서로 정서한 원편과 초서로 작성한 비편의 예시

위는 1679년 식년감시초시에서 작성된 〈오세추 시권(吳世樞 試券)〉으로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원편에는 사서의 답안을 해서로 작성하였으며, 비편에는 오경의 답안을 초서로 작성하였다. 원편의 가장 마지막 줄에 서의(書義)라는 과목과 시제인 '惟十有三祀, 王訪于箕子'는 정서로 기록되어 있어, 뒷면의 답안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비편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의 시권 및 문집 등에 수록된 답안을 연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현재 표에서는 최종 생원시 또는 문과에 입격한 자들의 대표 답안만을 추려 보았다.

〈표 1〉 비편 제도 폐지 이전 문과 및 생원시 입격자들 답안의 원편 및 비편 현황

연번	연도	시험 종류	응시자 (생몰년)	원편/비편	입격 기록
1	1492	식년감시복시	鄭希良 (1469-1502)	사서의/오경의(미상)	1495년 증광 병과 8위 1492년 생원시 입격(壯元)
2	1496	식년감시복시	金克成 (1474-1540)	사서의/오경의(미상)	1498년 별시 갑과 1위 1496년 생원시 입격(壯元)
3	1510	식년감시복시	梁彭孫 (1488-1545)	사서의/오경의(미상)	1516년 식년 갑과 3위 1510년 생원시 입격(亞元)
4	1527	식년감시초시 (향시)	李滉 (1501-1570)	사서의/오경의(예의)	1534년 을과 1위
5	1540	식년감시복시	梁應鼎 (1519-1581)	사서의/오경의(시의)	1552년 을과 7위 1540년 생원시 입격(壯元)

6	1543	식년감시복시	權東輔 (1518-1592)	사서의/오경의(예의)	1543년 생원시 입격 (二之六)
7	1555	식년감시복시	金富倫 (1531-1598)	사서의/오경의(시의)	1555년 생원시 입격 (二之七)
8	1561	식년감시복시	安景老 (1527-1592)	사서의/오경의(서의)	1561년 생원시 입격 (二之十二)
9	1588	식년감시복시	李涵 (1554-?)	사서의/오경의(춘추의)	1600년 별시 병과 5위 1588년 생원시 입격
10	1603	식년감시복시	朴壽宗 (1565-?)	사서의/오경의(예의)	1603년 생원시 입격 (三之二十五)
11	1609	증광감시복시	金是柱 (1575-1617)	사서의/오경의(서의)	1613년 증광 병과 7위 1609년 생원시 입격(壯元)
12	1630	식년감시복시	尹仁美 (1607-?)	사서의/오경의(시의)	1662년 증광 병과 18위 1630년 생원시 입격
13	1633	식년감시복시	宋時烈 (1607-1689)	오경의(역의)/사서의	1633년 생원시 입격(壯元)
14	1646	식년감시복시	尹時衡 (1602-1663)	오경의(춘추의)/사서의	1646년 생원시 입격 (二之五)
15	1651	식년감시복시	朴施雨 (1620-?)	사서의/오경의(서의)	1651년 생원시 입격(亞元)
16	1662	증광감시복시	張錄 (1622-1705)	오경의(서의)/사서의	1662년 생원시 입격 (三之二十二)
17	1666	식년감시복시	韓泰東 (1646-1687)	오경의(예의)/사서의	1666년 생원시 입격(亞元)
18	1666	식년감시복시	林泳 (1649-1696)	오경의(서의)/사서의	1666년 생원시 입격(壯元)
19	1669	식년감시복시	吳世周 (1646-1698)	사서의/오경의(역의)	1681년 별시 병과 12위 1669년 생원시 입격
20	1673	식년감시복시	黃櫟 (1640-?)	사서의/오경의(역의)	1673년 생원시 입격 (三之五十五)
21	1673	식년감시복시	李後榮 (1640-1710)	오경의(역의)/사서의	1684년 식년 병과 1위 1673년 생원시 입격
22	1675	식년감시복시	朴泰輔 (1654-1689)	사서의/오경의(예의)	1677년 알성시 갑과 1위 1675년 생원시 입격
23	1675	증광감시복시	趙維元 (1636-?)	사서의/오경의(예의)	1675년 생원시 입격 (二之十一)
24	1681	식년감시복시	金萬柱 (1653-?)	사서의/오경의(역의)	1690년 식년 병과 9위 1681년 생원시 입격

25	1683	증광감시 복시	吳世瞻 (1661-?)	사서의/오경의(시의)	1683년 생원시 입격 (三之五十四)
26	1684	식년감시 복시	李孝根 (1662-?)	오경의(시의)/사서의	1691년 증광 병과 16위 1684년 생원시 입격
27	1693	식년감시 복시	權以鎭 (1668-1734)	오경의(시의)/사서의	1694년 별시 병과 2위 1693년 생원시 입격
28	1699	식년감시 복시	李壽聃 (1665-?)	사서의/오경의(예의)	1699년 생원시 입격 (三之四十)
29	1705	식년감시 복시	朴敬祉 (1677-?)	사서의/오경의(예의)	1705년 생원시 입격 (三之五十八)
30	1710	증광감시 복시	黃世燮 (1671-?)	사서의/오경의(역의)	1710년 생원시 입격 (二之七)
31	1711	식년감시 복시	柳元鉉 (1674-?)	오경의(시의)/사서의	1711년 생원시 입격 (三之七十)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6세기~18세기 초반까지 생원시 응시자들은 사서의를 원편에, 오경의를 비편에 주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오경의를 원편에 작성한 답안은 17세기 중반 무렵부터 이따금씩 보이는데,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답안들이 많았다. 비록 표에 목록 전부를 다 신지 못했지만, 오경의를 원편에 내세운 답안은 1714년 이전에 작성된 전체 생원시 시권 150여 편 가운데 19편(12%) 정도에 불과했다.

오경의를 원편으로 작성한 응시자들 가운데 장영(張錄, 1622-1705), 한태동(韓泰東, 1646-1687), 이후영(李後榮, 1649-1710) 등은 다른 년도 또는 초·복시 등에서 작성한 각기 다른 답안들에서도 전부 오경의를 원편에 내세웠다. 출제 연도에 따라 오경의 안에서 과목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오경의를 원편으로 작성한 점은 변함이 없었다. 사서의 또한 마찬가지로, 시험별로 원편 과목을 바꾼 응시자는 보이지 않았다. 응시자들은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나름의 뚜렷한 주관이 있었던 것이다.

오경의를 원편으로 작성한 전체 답안 가운데는 역의(7)가 가장 많았으며, 예의(5), 서의(4), 시의(2), 춘추의(1) 순이었다. 오경의 과목에서 총 5문제가 출제되다가 한 경서에서만 출제된 시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이를 응시자의 의지

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역은 형이상학적 가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시험의 대비가 어려웠고,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기피하는 과목이어서 주역의 점수에 배회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해 본다면, 역의로 출제 되었음에도 이 과목을 선택하여 원편에 내세운 응시자들은 나름의 실력을 자부하며 다른 응시자들과의 차별성을 내세움으로써 시관에게 어필했던 것은 아닐까.

2) 비편 제도 폐지 이후

두 과목 중 한 과목에 비중을 두어 작성하는 것과, 한 과목만을 선택하여 작성하는 것. 사실상 다름없어 보이는 제도의 변화가 응시자들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이번에는 18세기 이후에 작성된 시권 및 답안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편 제도 폐지 이후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약 680여 편의 답안 가운데 사서의는 395편(58%)이며, 오경의는 285편(42%) 정도였다. 여전히 사서의를 선택하는 응시자들의 비율이 높긴 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사서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오경을 모두 준비해야 했던 시기 → 오경을 형식적으로라도 비편에 적어내야 했던 시기를 지나 두 과목의 완전한 선택권을 주기 시작하자 오경을 선택한 응시자들도 적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응시자들이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전체적인 범위가 줄어든 데다, 초집의 유행으로 인해 나올만한 구절과 모범 답안이 어느 정도 공유되었던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또한 두 구절 간 상충되는 논리를 지적하는 사서의 문제에 비해, 오경의는 그 구절의 대지를 개괄적으로 풀이했기 때문에 어떠한 시제에도 적어낼 수 있는 만능 답안의 내용이 보다 많고 다양했다. 조선 후기의 응시자들은 이러한 여러 요인들 속에서 사서의 못지않게 오경의로 자신 있게 답안을 채워 나갔다.

위의 수치는 물론 현재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비율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비편제 존속 당시 사서의 과목으로 경도되었던 분위기에서 두 과목간의 선택 비율 차이가 확연히 줄어든 양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응시자의 초시와 복시 시권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각 단계의 시험 간 과목을 바꾼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같은 연도의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연도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였다. 즉 최종 복시를 통과해 생원시에 입격한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초시와 복시에서 응시 과목을 바꾸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최종 입격하지 못해 초시를 여러 번 보는 경우에도 과목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간혹 바꾸는 경우도 끝내는 입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례로, 유학 임기호(任起鎬, ?-?)의 경우 1870년 식년감시초시에서 사서의를 택하여 응시하였으나 결국 입격하지 못하였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1891년 증광감시초시(전라도)에서 오경의(서의)로 새롭게 도전하였으나, 결국 방목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있다. 유학 이규일(李圭一)은 1876년 식년감시초시(대구)에서 오경의(시의)로 처음 생원시에 도전하였으나 복시로 진출하지 못한 듯하다. 그는 10여 년이 지난 후 사서의로 과목을 바꾸어 1888년 식년감시복시에서는 사서의로 생원시에 최종 입격하게 된다. 그는 次下外의 성적을 받아 3등 61위로 등제하였는데, 비록 좋은 성적과 높은 순위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10여 년이라는 공백 기간과 도중에 과목을 바꾼 후 만들어낸 결과였기에 입격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한다.

유학 임수주(林守柱, 1786-?)의 경우 또한 특이하다. 그는 1865년 80세라는 늦은 나이에 처음 생원시에 도전하였다. 그는 식년감시초시(전라좌도)에서 오경의(역의)에 응시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다. 80대의 나이에 도전을 멈추지 않은 그는 2년 후 1867년에 과목을 사서의로 바꾸어 응시했고, 그 결과 복시에 진출할 수 있었다. 초시 입격을 가져다 준 과목이 사서의였음에도, 그는 이후 복시에서 다시 오경의(예의)를 선택하였고 결국 3등 115위의 순위로 최종 입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도 존재하였으나,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평소 자신이 있었던 과목으로 초시와 복시에 동일하게 응시하였으며 시간차를 두고 다른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나 같은 시험

내의 초시·복시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상황은 매우 드문 경우로, 평생을 준비해 온 시험에서 도전과 모험보다는 안정과 신중을 도모하려는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생원시에 응시한 자들의 연령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17세기 이전 입격자들의 연령이 주로 20~30대에 분포하는 것에 비해, 연령 폭이 넓어지는 양상은 주로 18세기 이후부터 보여지며 19세기에는 1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거 시험의 준비 및 응시가 특권층의 전유물에서 점차 대중화의 방식으로 변모해가는 일부분의 지점이라 여겨진다.

1859년 증광감시에서 입격한 전영만(全永萬, 1842-?)은 당시 18세의 나이로 장원(壯元)의 영예를 입었으며, 1874년 증광감시에서 역시 장원으로 입격한 최형태(崔亨泰, 1857-?) 역시 18세의 어린 나이였다. 1888년 식년감시에서 입격한 이승필(李承弼, 1874-?)은 당시 불과 15세의 나이였다. 물론 70대 이상의 늦깎이 합격자도 많았다. 선우렴(鮮于潁, 1804-1881)은 1874년 증광감시에서 71세의 나이로, 심능숙(沈能肅, 1795-?)은 1875년 증광감시에서 80세의 나이로, 앞서 나온 임수주는 무려 82세의 나이로 입격하였다.

응시자의 나이대별로, 선택하는 과목에 차이가 있었을까? 위 시권을 합격 나이대별로 분류해 보니, 10~20대에 입격한 자들은 사서의(47%), 오경의(53%), 30~40대의 경우는 사서의(54%), 오경의(46%), 50~60대는 사서의(77%), 오경의(23%), 70대 이상의 경우는 사서의(20%), 오경의(80%)의 비율을 보였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40대 이전에는 두 과목간 비율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50대 이후의 노성한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사서의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70대 이후의 응시자들에서는 오경의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주 응시층인 40대까지의 비율에서 두 과목간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응시 나이에 따른 과목 선호 양상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의 최종 성적이 더욱 좋았을까? 생원시는 복시에서 1등 5인, 2등 25인, 3등 70인 총 100명의 입격자를 선발하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1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선발되는 등 시험마다의 차이는 있으나, 1등의 등급으로 5인을 선발한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필자가 수집한 생

원시 복시 시권 115편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인 장원과 아원(亞元)을 차지한 복시 시권만을 추려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비편 제도 폐지 이후 장원 및 아원의 성적을 거둔 생원시 입격자들

연번	연도	시험 종류	응시자(생몰년)	선택 과목	등제
1	1803	증광감시	康敏淳(1782-?)	사서의	一之一[壯元]
2	1805	증광감시	朴處恪(1769-?)	사서의	一之一[壯元]
3	1807	식년감시	黃勉基(1773-?)	오경의	一之一[壯元]
4	1809	증광감시	李仁承(1761-?)	오경의	一之一[壯元]
5	1814	증광감시	許 紘(1760-?)	사서의	一之一[壯元]
6	1816	식년감시	申在翼(1777-?)	사서의	一之一[壯元]
7	1819	식년감시	崔 桓(1787-?)	오경의	一之一[壯元]
8	1822	식년감시	金宗然(1783-?)	사서의	一之一[壯元]
9	1858	식년감시	李教植(1826-?)	사서의	一之一[壯元]
10	1858	증광감시	全永萬(1842-?)	사서의	一之一[壯元]
11	1870	식년감시	李肇榮(1838-?)	사서의	一之一[壯元]
12	1874	증광감시	崔亨泰(1857-?)	사서의	一之一[壯元]
13	1805	증광감시	金履祺(1762-?)	사서의	一之二[亞元]
14	1807	식년감시	金履明(1765-?)	오경의	一之二[亞元]
15	1809	증광감시	李德秀(1781-?)	오경의	一之二[亞元]
16	1810	식년감시	申永顯(1758-?)	오경의	一之二[亞元]
17	1814	증광감시	金濟德(1777-?)	사서의	一之二[亞元]
18	1816	식년감시	權 定(1773-?)	오경의	一之二[亞元]
19	1822	식년감시	成龍柱(1774-?)	사서의	一之二[亞元]
20	1858	식년감시	李東一(1832-?)	사서의	一之二[亞元]
21	1859	증광감시	李哲周(1835-?)	사서의	一之二[亞元]
22	1870	식년감시	池京濤(1841-?)	사서의	一之二[亞元]
23	1874	증광감시	裴 瓚(1823-?)	사서의	一之二[亞元]
24	1888	식년감시	黃玪(1855-1910)	사서의	一之二[亞元]

전체 답안 가운데 초시와 복시를 막론하고 일등(一等) 5인 안에 들어간 답안

은 각기 사서의 28편(7%)과 25편(8%)으로 두 과목 간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를 복시로 한정하고 최상위권 등제를 받은 장원과 아원으로 범위를 좁혀 보니, 사서의 과목으로 응시한 자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오경에 정통한 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사서보다 오경의 학습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조선 초기의 인식과는 사뭇 다른 결과인 셈이다.

이상에서 비판 제도 폐지 이후에 한 과목만을 선택하여 응시한 자들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전의 시기에서 사서의 과목에 원편이 집중되었던 것과는 달리, 두 과목간 선택에 있어 그 비율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문과 초시 초장에서 오경의가 선택 과목으로 존재했다가 없어진 사실이 생원시 응시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비판제도가 폐지된 1714년 이후는 문과초시 과목에서 오경의가 제외된 시점과도 일치한다. 오경의의 폐지를 명한 『속대전』은 1746년에 배포되었으나, 실제로는 18세기 초반부터 문과 초시에서 이미 오경의가 출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문과 방목에서 1714년에 초시 시제가 처음 기록²³⁾되기 이전의 문과 초시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현전하는 문과 초시 시권 가운데 논(論)과 오경의가 짝지어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자세한 시점은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오경의가 문과 초시의 선택 과목으로써 차지했던 위상이 거의 미미했으며, 생원시와 문과가 별도의 시험 체제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문과에 진출하여 사서의로 초시를 잘 통과하여도 복시 초장에서 칠서강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즉, 초시에서 오경의는 사라졌으나 다음 단계인 복시에서는 초장에 사서와 삼경을 강경하여 일곱 과목에서 최소 조(粗) 이상의 분수를 획득해야 중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오경의가 문과의 제술 과목에서 없어졌음에도, 생원시를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굳이 오경의를 선택하여 시험 본 이유 가운데 이러한 요인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23) 『上之四十年甲午聖候平復稱慶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1714)에는 권수에 초시의 시제가 기록되어 있다.

4. 생원시 입격자들의 과목별 등제 양상

- 사마방목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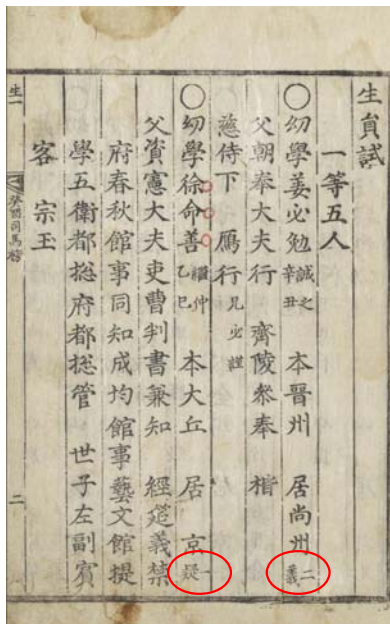
생원시 복시에서 각 응시자가 차지한 최종 순위는 시권, 과문집, 방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권은 잔존해 전해지는 특정 응시자들의 답안만이 있다는 점, 과문집은 특정 시기에 치러진 시험에 관한 답안이 전해진다는 각기의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방목의 경우는 각 시험과 관련하여 기록되는 정보의 양은 다르더라도, 해당 시험의 모든 입격자 명단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료에 비해 균일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시권 상에서 보여지는 최상위권 성적들의 답안은 사서의 과목의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의 보다 자세한 동향 파악을 위해, 본 단락에서는 사마방목에 이름을 올린 입격자들이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단회의 사마방목은 약 193종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생원시의 시제가 기록된 방목은 117종이다.²⁴⁾ 복시의 시제가 기록되기 시작한 방목은 인조대의 『무자식년사마방목(戊子式年司馬榜目)』(1648)이며, 초시의 시제까지 기록된 것은 경종대의 『신축성상즉위증광별시사마방목(辛丑聖上卽位增廣別試司馬榜目)』(1721)이다. 상술하였듯이, 1714년에는 문무과 방목에서 문과 초시의 시제까지 기록되는 모습이 보인다. 후기로 갈수록 방목에 기록되는 정보가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이다.

이후 영조대인 1741년에 이르면 입격자 명단에 이 사람이 선택한 과목(疑·義)과 장소(一所·二所)까지 기록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좌측은 1753년의 식년 사마방목으로, 이미지를 살펴보면, 1등 5인부터 시작하여 성적순으로 이름과 본관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24) 윤선영, 2019 앞의 논문, 58-62면.



〈그림 2〉『崇禎三癸酉式年司馬榜目』

하단을 살펴보면 ‘二義’, ‘一疑’라고 적혀 있는데, 장원을 차지한 강필면(姜必勉)은 오경의 과목으로 이소에서 시험을 보았으며, 서명선(徐命善)은 사서의 과목으로 일소에서 응시하였음을 의미한다. 100여 명에 달하는 입격자들의 선택 과목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체화된 자료이다.

물론, 방목의 기록을 통한 선택 과목의 비율 조사는 비록 1714년 이후라는 시기적 한계점이 존재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 응시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공인된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741년 이후 간행된 사마방목은 총 71종으로, 이 가운데 62종의 방목에서 위와 같은 응시자들의 선택 과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1등 5인에 속하는 최상위권 등제를 받은 입격자들의 선택 과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응시자들의 선택 과목이 기록된 방목의 명단과 1등 5인 입격자들의 응시 과목

연번	왕조(연도)	방목명	1	2	3	4	5
1	영조17(1741)	崇禎再辛酉式年司馬榜目	義	義	疑	義	疑
2	영조20(1744)	崇禎再甲子式年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義
3	영조26(1750)	崇禎三庚午式年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4	영조29(1753)	崇禎三癸酉式年司馬榜目	義	疑	義	義	疑
5	영조35(1759)	崇禎三己卯式年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義
6	영조38(1762)	崇禎三壬午式年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7	영조44(1768)	崇禎三戊子式年司馬榜目	義	義	疑	義	疑
8	영조47(1771)	崇禎三辛卯式年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9	영조50(1774)	崇禎三甲午式年司馬榜目	疑	義	義	疑	疑
10	영조50(1774)	崇禎紀元後三甲午慶科增廣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11	정조1(1777)	崇禎紀元後三丁酉增廣司馬榜目	疑	義	義	疑	義

12	정조1(1777)	丁酉式年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13	정조4(1780)	崇禎三庚子式年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14	정조7(1783)	崇禎三癸卯春先大王尊爲世室元子定號合二慶別試增廣司馬榜目	義	疑	疑	義	義
15	정조13(1789)	崇禎三己酉式年司馬榜目	疑	義	義	疑	疑
16	정조14(1790)	崇禎三庚戌增廣司馬榜目	義	疑	疑	義	疑
17	정조16(1792)	崇禎三壬子式年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18	정조22(1798)	崇禎三戊午式司馬榜目	疑	義	疑	義	疑
19	순조1(1801)	崇禎三辛酉春聖上卽位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	疑	義	義	疑	疑
20	순조1(1801)	崇禎三辛酉秋式年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21	순조3(1803)	崇禎三癸亥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	疑	義	疑	義	疑
22	순조4(1804)	崇禎百七十七年甲子式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23	순조5(1805)	崇禎三乙丑冬大殿痘候平復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24	순조7(1807)	崇禎三丁卯式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25	순조10(1810)	崇禎三庚午式司馬榜目	疑	義	疑	義	疑
26	순조13(1813)	崇禎紀元後百八十六年癸酉合四慶慶科增廣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27	순조14(1814)	崇禎紀元後四甲戌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28	순조16(1816)	崇禎三丙子式司馬榜目	疑	義	義	疑	義
29	순조19(1819)	崇禎四己卯式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疑
30	순조22(1822)	崇禎四壬午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31	순조25(1825)	崇禎紀元後四乙酉式司馬榜目	疑	義	義	疑	義
32	순조27(1827)	崇禎紀元後四丁亥慶科增廣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33	순조28(1828)	崇禎紀元後四戊子式司馬榜目	疑	義	疑	義	疑
34	순조31(1831)	崇禎紀元後四辛卯式司馬榜目	義	疑	疑	義	義
35	순조34(1834)	崇禎紀元後四甲午式司馬榜目	義	疑	疑	義	義
36	헌종1(1835)	崇禎紀元後四乙未慶科增廣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37	헌종3(1837)	崇禎紀元後四丁酉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38	헌종6(1840)	崇禎紀元後四庚子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39	헌종9(1843)	崇禎紀元後四癸卯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40	헌종10(1844)	崇禎紀元後四甲辰增廣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41	헌종12(1846)	崇禎紀元後四丙午式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42	헌종14(1848)	崇禎紀元後四戊申增廣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義
43	헌종15(1849)	崇禎紀元後四己酉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44	철종1(1850)	崇禎紀元後四庚戌增廣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45	철종3(1852)	崇禎紀元後四壬子式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46	철종6(1855)	崇禎紀元後四乙卯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47	철종9(1858)	崇禎紀元後四戊午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48	철종10(1859)	崇禎紀元後四己未增廣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49	철종12(1861)	崇禎紀元後四辛酉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50	고종1(1864)	崇禎紀元後四甲子增廣司馬榜目	義	義	疑	疑	義
51	고종2(1865)	崇禎紀元後四甲子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52	고종7(1870)	崇禎紀元後四庚午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53	고종10(1873)	崇禎紀元後四癸酉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54	고종11(1874)	崇禎紀元後五甲戌增廣別試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55	고종13(1876)	崇禎紀元後五丙子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56	고종16(1879)	崇禎紀元後五己卯式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57	고종19(1882)	崇禎紀元後五壬午式司馬榜目	疑	疑	義	疑	-
58	고종22(1885)	崇禎紀元後五乙酉慶科增廣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59	고종22(1885)	乙酉式年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60	고종25(1888)	崇禎紀元後五戊子式年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61	고종28(1891)	上之卽祚二十九年辛卯慶科增廣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62	고종31(1894)	上之卽祚三十二年甲午式年司馬榜目	疑	疑	義	義	疑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8세기 중반 이후의 생원시의 장원을 차지한 62명 가운데, 사서의로 최종 입격한 사람은 41명, 오경의는 21명이므로, 이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수치이다. 시기를 더 뒤로 한정해서 1848~1894년까지, 즉 19세기 중반 무렵부터 과거제 폐지시까지를 보면, 21명 가운데 사서의를 선택한 자들은 19명, 오경의는 2명이었다. 사서의를 선택하여 장원을 차지한 자들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장원을 포함하여 최상위 그룹이라 할 만한 1등 5인의 비율은 어떨까? 1등 1인은 100점, 2인은 80점, 3인은 60점, 4인은 40점, 5인은 20점을 부여하여 총합을 300점으로 놓고 평균 점수를 계산해 보았을 때 사서의는 162점, 오경의는 138점이었다. 사서의를 선택한 자들이 다소 우세를 보였으나,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는 5명 안에서 한 과목으로 우수 등제자가 쏠리지 않도록 안배를 했다는 것이다.

만일 최종 입격자 100여 명을 성적순으로 나열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명을 1등 그룹에 속하게 했다면 확률상 어떠한 해는 4:1, 심하게는 5:0의 비율 까지도 나와야 할텐데, 62번의 시험에서 각 과목의 비율은 모두 3:2(혹은 2:3)

의 동일한 비율을 보인 것이다. 또한 1750년부터 시작되어 1837년 이후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이 있다. 즉 장원과 아원에 사서의, ‘一之三’과 ‘一之四’는 오경의, ‘一之五’는 사서의가 계속 반복됨(표에서 음영처리)을 볼 수 있다. 총 26번의 시험 가운데 21번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 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보다 자세히 살피기 위해 위 사마방목에 기록된 모든 입격자들의 선택 과목을 전수 조사해보니, 식년시처럼 100여 명으로 입격자가 고정된 시험의 경우는 50:50의 비율을 보였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증광사에서 100여 명이 훨씬 넘는 입격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경우에도 1명 차이로 거의 절반이 유지되는 경우와 정확히 절반으로 지켜지지는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앞의 예시로는 총 135명을 뽑은 1864년의 증광감사에서 사서의:오경의의 비율이 68:67이었음을 들 수 있으며, 뒤의 예시로는 238명을 선발한 1891년 증광감사에서 108:130이었던 것을 들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실시된 증광사에서 입격자의 수가 정원보다 훨씬 많아졌을 경우에만 두 과목 간 조금의 비율 차이가 보일 뿐이었으며, 이때 사서의보다는 오경의 답안이 조금 더 많은 수를 차지했다.

종합해 보자면 전체 입격자 중에 사서의 과목을 선택한 자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인원수로는 오경의를 선택한 자들이 조금 더 많았다. 이는 조선 초기 오경의가 비편으로 위상이 하락하고, 허소화된 양상과는 제법 차이가 있다.

입격자의 비율 안배는 시험을 보는 장소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시험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상피제(相避制) 등의 실시로 인해 시소(試所)를 일소(一所)와 이소(二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장원과 아원은 무조건 시소가 달랐으며, 정원이 100명으로 지켜지던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50:50의 비율을 철저히 유지했음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는 같은 문제로 시소만 달리하여 시험 보는 방식이 아니라, 각 소마다 시제가 달랐던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그 이후 정원이 100명을 초과했을 때도 일소와 이소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두 시소간 입격자 비율은 10명 이내의 차이를 보일 뿐이어서, 선택 과목의

비율 차이보다도 적었다. 최종 입격자를 성적순으로 뽑은 이후 이 사람이 몇 시소에서 어떠한 과목으로 시험을 봤는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소를 안배하여 각 시소의 최우수 답안을 장원과 아원으로 결정한 후, 이에 맞게 3등부터 5등까지 정해진 과목별 비율대로 입격자를 정하고, 나머지 인원 역시 시소와 과목별로 안배하여 그 수를 채워나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지원자들이 시험의 시제와 선택 과목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나름의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과목으로 합격자가 쏠릴 경우, 이는 추후 시험에서 이를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학습 동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했던 듯하다. 응시자들 전체 순위에서 100위 안에 들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시험장과 내가 선택한 과목의 25위 안에 들어야 하는 방식이므로 응시자들은 두 과목 사이에서 어떤 과목이 더 대비가 쉬울지보다는, 어떤 과목이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을지를 신경썼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최종 문과에 입격한 자들이, 이전 단계인 생원시 혹은 문과 초시에서 주로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생원시 시권이 전해지고 있는 총 248명 가운데 최종 문과 합격자는 63명으로 약 26% 정도가 된다.²⁵⁾ 시권은 주로 특정 가문에서 선조의 입격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겨 전해진 유물임을 상기해 볼 때, 평균적인 비율보다는 높은 수치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63명의 문과 합격자 가운데 생원시와 문과 초시에서 사서의를 선택했던 사람은 40명, 오경의를 선택했던 사람은 23명으로 사서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생원시의 상위권 등제 비율에 있어 사서의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점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오경의는 19세기 중반 이후 생원시의 전체 입격자 비율에서 사서의보다 높아 조선 초기의 기피 현상과는 거리가 멀게 보였으나, 이러한 기세가 문과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25) 기왕의 연구에서, 생원 및 진사 가운데 최종 문과에 진출하는 자의 비율은 6.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이성무, 2004 『한국의 과거제도』, 한국학술정보(주), 155면). 이는 진사 시도 합쳐진 결과여서, 생원시만을 별도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이상에서 조선시대 생원시 응시자들이 사서의와 오경의 두 과목 가운데 어떠한 과목을 선호하였으며, 등제 및 입격 비율 등은 어떠한지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그간 어렵פות이 예상되었던 두 과목의 선택 양상의 실체에 어느 정도 다가갔다는 점에서 미약하나마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기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비편 제도가 실시되었던 17세기 이전에는 사서의로 경도되었던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비편제 폐지 이후 한 과목에 집중하게 되면서 오경의 또한 활발하게 작성되었으며,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오경의로 작성한 답안으로 입격한 자들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응시자 전체의 선택 비율은 알 수 없으나 입격자로 한정하여 보았을 때에는 두 과목이 거의 비등해진 셈이다. 물론 이는 시험 장소와 과목별로 입격 정원을 안배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상위권 등제로 보았을 때는 사서의 과목을 선택한 자들이 전 시기적으로 우세하였다. 하지만 비편제 폐지 전후로 그 이유는 다른 듯하다. 앞 시기에는 그만큼 사서의로 시험보는 자가 많았기에 자연스레 상위권도 많이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뒷 시기에는 전체 입격자 비율은 비슷하나, 최상위권에 사서의 과목 선택자가 많이 포진됨을 볼 수 있었다. 이 또한 1등 5인 안에서 한 과목으로 물리지 않도록 조정된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장원이나 아원의 경우는 시험 장소로는 나누었으나, 과목으로는 안배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상위권 등제에서는 사서의 과목을 선택한 자들이 우세하였던 것은 확실하다.

이는 문과 합격의 비율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생원시 및 문과 초시에서 사서의를 선택한 응시자들이 최종 문과에 합격하는 비율이 높았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서를 전공한 자들이 경학에 더욱 뛰어났다기보다는, 경학에 정통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합격을 위한 안전장치로 오경보다는 사서가 더욱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권과 방목, 문집 등 여러 자료들을 이용하여 생원시 응시자

들의 제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각기의 특성과 해당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본 연구 또한 이에 따른 여러 한계점이 있다.

우선 오경의의 경우 다섯 책에서 각기 한 문제씩을 출제하고 이 가운데 한 문제를 선택했던 1650년 이전의 시기에는 방목에 시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오경 가운데서도 응시자들이 어떠한 과목을 선호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셈이다. 또한 오경에서 한 문제만 출제된 이후, 입격자들의 선택 과목을 기록해 준 것은 18세기 중반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그 이전의 동향은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현재 잔존하고 있는 복시 시권 및 방목의 경우 이미 합격한 사람들의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그마저도 시소간·과목간 입격자 수를 일정 비율로 안배했기 때문에 입격 및 등제 수치를 가지고 과목별 응시자들의 경학 능력을 가늠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응시자들의 과목 선택 양상을 살펴야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수의 시권 확보를 비롯하여 사료와 문집, 필기·야담류 등의 생활사를 다룬 작품까지 더욱 폭넓은 자료들에서 그 근거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는 후일의 연구로 지속하고자 한다.

주제어 : 과거(科擧), 생원시(生員試), 사서의(四書疑), 오경의(五經義), 비편(備篇, 裨篇), 과목 선택, 등제(登第)

투고일(2023. 4. 28), 심사시작일(2023. 5. 15), 심사완료일(2023. 5. 26)

〈Abstract〉

The Aspect of Subject Selection and Acceptance Status about the Sangwon-si(生員試) Examinee in Joseon Dynasty

Yoon, Sun-young*

During the Joseon Dynasty, Saengwon-si was a test that evaluated the understanding of Confucianism, and it was a basic test divided into Sogwa(小科, a preliminary examination) along with Jinsa-si(進士試, preliminary examination about literature). Saengwon-si tested two subjects, Saseo-ui(四書疑) which logically asked questions about the four books, and Ogyung-yi(五經義) which describes the earth of one of the five books.

At first, both Saseoui and Ogyungyi were tested, and the subjects that the applicant was confident in were written in emotion in the original part of the answers sheet, and the rest of the subjects were written in cursive in the monument to make a difference. After that, with the abolition of the Bipyen(備篇, the answers in the back page) system in 1714, applicants chose one of the two subjects and took the test.

This paper focused on to reveal which subjects the applicants mainly chose among the two subjects that were tested in Saengwon-si during the Joseon Dynasty, Saseo-ui and Ogyung-yi. To this end, writer analyzed the preferences of specific subjects and which subjects were ranked relatively well in the future by analyzing data such as answer sheet, applicants' personal collections, and Sama- bangmok(司馬榜目, Roster of Successful Licentiate Examination Candidates).

First of all, when divided by period, there was an atmosphere that was revered as a Saseo-ui before the 17th century when the Bipyen system was implemented. However, after the abolition of the Bipyen system, Ogyung-yi was also actively written, and since the mid-19th century, the number of people who entered with Ogyung-yi's answers has increased. The ratio of selection of all applicants is unknown, but when limited to those

* Research Professor, Inst.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ersity.

who entered the exam, the two subjects have become almost equal. Of course, this is deeply related to the arrangement of passing quota for each test place and subject.

In terms of the highest ranking system, those who chose the subject of librarians prevailed all over the time. However, the reason seems to be different before and after the abolition of Bipyeon system. In the previous period, there were so many people taking the test as Saseo-ui, so it is estimated that the top ranks naturally took up a lot. In the later period, the proportion of all successful applicants was similar, but it could be seen that many Saseo-ui chose subjects at the top. This may also have worked because it was adjusted not to be concentrated in one subject within the top five. However, in the case of the first or second place overall, it was divided into test places, but considering that it was not arranged as a subject, it is clear that those who chose the subject of Saseo-ui prevailed in the upper-level system.

This is naturally linked to the rate of passing Mungwa(文科, a major examination), and the rate of applicants who chose Saseo-ui in Saengwon-si and first step of Mungwa was high. Overall, it is judged that Saseo-ui were still more preferred as a safety device for passing, rather than those who majored in Saseo-ui.

Key Words : Civil service examination(科擧), Saengwon-si(生員試, a preliminary examination about Confucianism), Saseoui (四書疑, Questioning on the Four Books), Ogyungyi(五經義, questioning on the five classics), Bipyeon(備篇, 裨篇, the answers in the back page), Select a subject, pass an examination(登第)